

“제시안 내용 없어 검토·지적할 게 없다”

7차 중앙교섭, 사측 2차 제시안 내놔 ... 구체 내용 없이 노조 요구안 전문 발췌해 제시

1차 제시안보다 나오려나? ‘혹시나’ 했는데 아니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차 제시안을 냈지만, 노조 요구에 턱없이 부족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가 6월 1일 오후 경남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7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중앙교섭에 노조 경남지부 소속 지회장 등 교섭위원들이 참관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 교섭 의제에 창원시가 직접 관심을 보이니 지금 우리가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라고 교섭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날 교섭 전에 허성무 창원시장이 교섭장을 찾아 산업재편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금속산업 노·사 노력에 기대가 크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고



민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업장 단체협약의 각종 노사위원회와 올해 노조 산업전환협약 요구에 들어있는 노·사 공동결정 체계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회원사들의 의문이 여전히 강하다”라며 “노조가 제시하는 방향이 최선이고 정답이냐는 문제 제기도 만만찮다. 정리가 쉽지 않다”라고 털어놨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 인사말에서 “무한정 시간을 줄 수 없지만, 변화를 위한 고민을 정말 하고 있다면 노조가 기다리겠다” 라면서, “안타깝게도

지난주 제출한 1차 제시안과 사측 발언을 보면 노조와 고민의 결이 다르고 노조를 기다리게 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와 함께 미래에 대응하려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본다”라며 “사용자협의회와의 견해와 논리만 고수하는 상황이 더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이제 사측이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용자협의회는 7차 교섭에서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요구에 관한 제시안

만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방안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 보는 노동자·사업주 지원책 수립을 요구하자는 내용이 전부다.

산업전환 협약과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는 내부 의견수렴 중이라며 추가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6차 중앙교섭에서 산업전환 대응을 위해 정부에 노사 지원·보호 대책 마련을 공동요구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금액 동결과 적용대상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2차 제시안에 관해 “산업전환 협약과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요구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더 고민하겠다. 다만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사내하청·사외하청 확대 적용 요구는 거듭 말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못 박았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사용자협의회는 교섭 때마다 노조와 상황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하지만, 사측 제시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제시안은 노조가 검토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며 “별써 7차 교섭이다. 사측은 속도를 내야 한다. 다음 교섭까지 세부 내용을 채워서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1차, 2차 제시안 모두 정부 역할 촉구만 담고 있다.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은 없다”라며 “금속노조가 제시하는 방향은 언제나 최선이였다. 노조 주장이 틀렸다면 의견을 내라. 대안은 내지 않으면서 피하려고만 한다”라고 사측 태도를 비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 마무리 발언에서 “사측 제시안이 노조 요구안 전문을 발췌한 정도라 지적할 게 없다”라며 “사측의 솔직한 고민을 명확히 드러내

달라. 전체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다시 요구한다”라고 당부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 임금교섭밖에 없는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며 “구체 내용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교섭 진척 속도가 느리지 않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8차 중앙교섭을 6월 8일 대전 또는 충북에서 연다. 8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가 주관한다.

2021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

2021. 6. 1.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21년 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가. 통일요구안
산업전환협약
추후제시-의견수렴 중

나. 중앙교섭요구안

1)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는 심각성에 공감하며 인류의 생존과 생명 안전을 우선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방안, 산업전환 과정에서 쇠락하는 지역·업종의 노동자·사업주 지원 및 보상책 수립을 함께 요구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현행유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수준은 내부의견 수렴 중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직무대행 박근형(인)